

우장춘의 한국 귀환과 과학연구*

김 근 배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Chang Choon Woo's Return to Korea and Scientific Research

KIM Geun Bae

Department of Science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이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초연구(R01-2004-000-10165-0)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Chang Choon Woo's (1898-1959) research on the vegetable breeding after his return to Korea. Wu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greatest scientists in Korea, and most Koreans remember him as the discoverer of seedless watermelon and a passionate patriot. He however has a very complicated background: he was born as a mixed-blood descendant of Korean and Japanese parents; and he lived and worked in Japan for more than 50 years. In this paper I will argue that the primary reason of his return to Korea was to serve his fatherland, not just to discover his identity. His return and service to Korea therefore should be explained by science humanism rather than patriotism. I also demonstrate that the primary aim of his scientific research in Korea was for the self-sufficiency of vegetable seeds and for the development of F1 hybrid seeds. His reputation as the discoverer of seedless watermelon was due to misunderstanding of the public in the beginning of modern science in Korea.

1. 머리말

우장춘은 과학자로서는 드물게 아주 극적인 삶을 산 인물이다. 일본 망명객 아버지와 굴곡진 시대상황으로 인해 그는 험난한 인생길을 숙명처럼 밟게 되었다. 이 때문에 우장춘은 일본에서 약 50년, 한국에서 말년의 10년을 살았으며, 결국 한국에서 보낸 기간은 생각보다 매우 짧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장춘은 한국인인가, 일본인인가, 아니면 그 중간의 경계인인가? 그가 지녔을 민족적 정체성을 뚜렷하게 단정짓는 것은 그다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우리에게는 우장춘을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바로 그는 언제나 투철한 조국애를 지녔던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라는 것이다. 물론 우장춘은 한국에 와서 한국의 과학발전을 위해 커다란 업적을 남긴 후에 숨을 거두었다. 그렇지만 그의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만큼이나 그의 가치관, 정체성 등도 계속해서 변화하여 왔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우장춘을 다룬 책이나 글은 비교적 많이 있으나 대부분은 '한국인' 우장춘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¹ 그동안 그가 다른 과학자보다 훨씬 집중 조명을 받았던 것도 사실은 뛰어난 연구성과를 낸 위인이라는 점과 함께 열렬한 애국심을 지닌 대표적 본보기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는 한국 현대사가 표방해온 커다란 두 흐름이라 할 민족주의와 과학주의를 잘 결합시켜 실천한 인물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나는 우장춘을 한국인으로 당연히 여기는 기존의 전통적 시각과 다르게 우장춘의 존재 모습을 시기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보려고 한다. 이같이 새로운 시각으로 우장춘을 볼 경우 우선적으로 규명할 일은 그가 어떻게 해서 한국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의식과 행동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그가 한국을 만나게 된 것은 당연히하고

) 우장춘을 다룬 글로는 쓰노다 후사코, 오상현 옮김, □조국은 나를 인정했다□ (교문사, 1992); ◎??, □마음속에 살아있는 ?□ ???□ (신원문화사, 1984); "???의 세계적 ◆? ???", □어둠을 밝힌 사람들□ (부산일보사, 1983), 125-170쪽; 오동훈, "겨레의 농학자 우장춘", 박성래 외, □우리 과학 100년□ (현암사, 2001), 272-291쪽; 정재정, "우장춘: '국적의 아들'에서 '홍농의 아버지'가 된 세계적인 육종학자", 한영우선생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63인의 역사학자가 쓴 한국사 인물 열전□ 3(돌베개, 2003), 339-364쪽; 박택규□이중호,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육종학자 우장춘", □명예의 전당에 오른 한국의 과학자들□ (책바치, 2004), 69-93쪽 등이 있다.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계기와 동기가 중요한 인연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장춘은 뒤늦게 한국이라는 그로서는 아주 낯선 나라로 건너왔다.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이 사건 역시 새롭게 해명해야 할 중요 사안이다. 그가 '조국'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우장춘의 한국행을 그가 내면에 남달리 지니고 있던 전혀 다른 요소로 설명하려고 한다. 조국에라는 감정이 그리 투철하지 않았거나 혹은 없었음에도 그는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한국으로 건너와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우장춘이 한국에서 수행한 과학연구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오히려 '씨없는 수박' 개발이라는 잘못된 사실만이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우장춘은 일본에서와는 매우 다른 목표와 내용을 가지고 과학연구를 추진하였다. 정체성과 가치관이 달라짐으로써 그의 과학연구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장춘의 과학연구 역시 새로운 시각에 따라 재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그럴 때에만 그의 과학연구가 당시 한국에서 지니는 의미도 제대로 살아날 수 있게 된다.

이 글은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한국에서 행한 우장춘의 과학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과 그와의 만남은 이 논의를 적절히 펼치기 위한 필요조건의 일부로 다루어진다. 그 다음에는 그가 해방이후에 왜 한국으로 건너왔고, 한국에서 하고자 한 과학활동의 방향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했는지를 본격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우장춘의 내면세계를 좀 더 잘 들여다 볼 수 있고 한국에서 이룬 과학연구가 지니는 가치도 새롭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우장춘과 한국의 만남

우장춘 귀국 환영회가 부산 동래원예고등학교 교정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그는 한복 차림을 하고 나타났다. 처음 입어보는 옷이라 어색한 느낌도 들었지만 그런 대로 잘

어울렸다. 사실 그가 귀국할 때의 옷차림은 양복에 코트를 걸친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의 귀국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한복으로 갈아입혔고 덕분에 모든 사람들은 그가 한국인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우리는 우장춘을 한국인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는 한국인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한국의 과학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한 과학자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장춘을 애초부터 부정할 수 없는 한국인으로 단정짓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그의 집안내력, 성장과정, 활동지역 등을 보면 그가 처음부터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졌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오히려 우장춘은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기간을 일본인, 혹은 일본인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우장춘의 집안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그림 1>).² 근대이후 일찍이 복잡한 혈통의 가계를 형성한 보기 드문 경우이다. 그의 어머니와 부인은 일본인이고 동생과 자녀들도 일본인으로 살아갔다. 반면에 그의 아버지, 이복형제, 이모부, 이종사촌은 한국인이었다. 혈통으로 볼 때 우장춘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피를 이어받은 혼혈아로서 한국에는 물론 일본에도 여러 명의 친척이 있었다.

<그림 1> 우장춘의 가계

) 우장춘의 가계도는 쓰노다 후사코, □조국은 나를 인정했다□; 김태욱, □마음속에 살아있는 인간 우장춘□; ???, □???과 ???□ (1984) 등에 나와 있는 친족 관계를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우장춘은 아버지 우범선(???)과 어머니 사카이 나카(???)의 장남으로 1898년 4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다. 이때에 우범선은 사위 강원달(우희명의 남편)에게 부탁을 한듯 우장춘을 한국 경성에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에 올렸다. 그는 자기 아들이 당연히 한국에 돌아가 살 것으로 생각해서 한국 이름과 국적을 얻게 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우범선은 당시 일본 법률로는 정식 결혼이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생자인지계(???? z)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렇듯 우장춘은 탄생과 더불어 한국인 우범선의 아들이자 일단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³

그런데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연루되어 망명중이던 우범선은 한국인 자객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우장춘이 다섯 살 되던 해로서 이때부터 그는 일본인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우장춘과 한국의 인연은 하루아침에 끊어져 한국인으로서의 언어, 의식,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급격한 단절이 뒤따랐다. 다만, 그의 이름은 나가하루(??)로 불렸으나 성만은 한국식 우(?)를 그대로 썼다.⁴ 우장춘이 한국인 성을 사용하게 된 것은 당시의 가족제도와 어머니의 영향에 힘입은 바가 컸다고 생각된다. 장남인 우장춘은 그의 동생과 달리 다른 집안에 양자로 들어갈 수 없었고⁵ 그의 어머니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어머니 나카는 일본 여성으로서로는 드물게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글을

) 쓰노다 후사코, □조국은 나를 인정했다□, 47-48쪽; 김태욱, □마음속에 살아있는 인간 우장춘□, 33-34, 37-38쪽. 우장춘의 가족관계와 그 배경은 쓰노다 후사코의 책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 일본에서 사는 동안 우장춘은 우 나가하루(U Nagaharu)로 불렸고 현재 일본에서는 그를 우쵸우순으로 부르고 있다.

) 우장춘과 달리 그의 동생은 어머니 먼 친척의 집안에 양자로 입적되어 일찍부터 일본식 성을 정식으로 가졌다.

읽을 줄도 몰랐다. 결과적으로 우장춘은 일본인으로 철저히 개명되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대로 두어졌던 것이다.

우장춘과 한국의 인연은 그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새로이 생기게 되었다. 1916년 일본 도쿄제국대학 농학실과에 진학할 때 그는 조선총독부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았던 것이다. 당시 집안 사정이 아주 어려웠던 우장춘으로서는 자력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때에 일본에 있는 우범선의 지인들이 알선하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우장춘이 조선총독부 관비유학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 인해 우장춘은 자신이 뜻하던 공학이 아니라 농학을 선택해야 했고 그것도 전문학교 과정인 농학실과에 입학하게 되었다.⁶

그러나 당시 한국인들은 우장춘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를테면, 조선유학생학우회에서 발간한 잡지 □학지광□의 졸업생 명부나 소식란 어디에도 우장춘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⁷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던 한국인 유학생들은 그가 관비유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우장춘도 자신을 한국인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과 교류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단지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한국 국적을 이용하여 조선총독부의 재정 지원을 받았을 뿐이다.

우장춘은 농학실과를 다닐 때나 졸업후 도쿄에 있는 농사시험장에 근무하던 시절에도 일본인으로 살아갔다. 그의 주변 사람들이 온통 일본인이었을 뿐더러, 그에게는 일본에서

) 우장춘이 농학실과에 진학한 1916년 당시 한국인 관비유학생은 우장춘을 포함해서 29명이었다. ???ㄴ?, □???ㄴ???ㄴ?□ (1918).

) 당시 □??ㄴ□에는 한국인 유학생의 소식을 비교적 널리 알고 있어 많은 경우 재학과 졸업여부는 파악할 수 있었다.

과학자로서 이루고 싶은 큰 꿈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한국인보다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족관계나 직장생활에서 편안하고 좋았을 것이 분명하다. 갈수록 일본으로의 귀속의식과 그에 대한 문화적 친밀감은 몸에 배일 정도로 아주 익숙하고 친근하게 되었다.⁸ 이 때문에 그는 일본에서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비교적 평탄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첫 번째 커다란 시련이 1923년 무렵 일본인 와타나베 고타루(伊藤?)를 만나면서 찾아왔다. 그녀는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던 신여성이었다. 고타루의 집안은 체면을 중시하던 시대 분위기에서 우장춘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의 만남을 한사코 반대했으며, 그들의 결혼으로 결국 그녀는 부모와 의절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후 그녀의 집안에서 호적을 건네주지 않아 혼인신고도 할 수 없는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⁹ 이때에 우장춘은 하나의 결단을 내렸다. 두 사람의 혼인신고와 태어날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오랫동안 호의를 베풀어주던 스나가 하지메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본식 성을 얻기로 하였다. 고타루가 스나가 집안의 양녀로 먼저 들어간 뒤 우장춘이 그 집안의 데릴사위가 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로써 우장춘은 1926년에 일본국적과 함께 스나가 나가하루(????)라는 일본식 이름을 정식으로 얻었고 그의 자녀들은 모두가 스나가 성을 따르게 되었다.¹⁰

) 식민지시기 제일 한국인들의 귀속과 문화에 대해서는 도노무라 마사루, "식민지시기 제일조선인의 문화 아이덴티티 재고", 임지현·이성시 엮음,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2004), 355-388쪽을 참고할 것.

) 쓰노다 후사코, □조국은 나를 인정했다□, 111-3쪽.

) 같은 책, 115-6쪽.

하지만 우장춘은 한국식 성을 계속 고집해서 썼다. 일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녀들과 달리 법적으로 부여된 성을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장춘이 한국식 성을 고수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 정확한 연유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 자신의 성을 우로 써왔고 그것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와의 연분을 나타내주는 징표이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한다. 게다가 그가 일본인과는 다른 성을 써왔다는 사실은 주변의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 구태여 그것을 뒤늦게 와서 바꾸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다. 일본인 성이 자신의 생활과 처신에 유리할 수 있었겠지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까지 버리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장춘은 한번 세운 뜻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나가고 자신을 속이거나 포장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올곧은 성품의 사람이었다.

우장춘은 한국식 성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두 번째 가혹한 시련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직장인 농업시험장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기수(◆?)의 처지를 벗어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전문학교 출신이라는 학력이 문제가 되었으나 아주 탁월한 논문으로 직장에서 유일하게 박사학위를 받았음에도 그에게 가해지는 차별은 여전히 계속되었다.¹¹ 무엇보다 우장춘이 완전한 일본인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다. 그가 우라는 한국식 성을 고집함으로써 누가 보아도 일본인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쉽게 드러났던 것이다. 더구나 당시는 일제가 일상생활에서까지 한국인을

) 우장춘은 농업시험장을 그만두기 하루 전에 위로 차원에서 기사(◆?) 직급을 받았다. ???, "???", 농림부, □원에서시험장장 임명의 건 상신□ (1958, 국가기록원 소장). 우장춘에 대한 여러 동료들의 회고는 쓰노다 후사코, □조국은 나를 인정했다□, 122-141쪽에 실려 있다.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고 일본국가에의 협력을 강제하는 협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을 때였다. 결국 우장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농사시험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의식과 행동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그동안 혼신의 열정을 기울여 자신의 꿈을 펼쳤고 어떤 차별이든 자신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과학분야에서 맞닥뜨린 좌절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한국에 우장춘이 처음 소개된 것은 그가 박사학위를 받은 1936년으로 바로 이 시기였다. 이때에 일본의 신문과 방송이 그를 대서특필했고 이로 인해 한국에도 그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동아일보□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일본의 농업시험장에 근무하는 우장춘이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의 원적은 한국 경성'이라는 것이었다.¹² 하지만 그 기사의 내용이 너무 간단했을 뿐더러 다시 한동안은 그에 대한 소개마저도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듯 우장춘이라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여전히 어색하고 낯선 존재였다.

이 무렵 일본에서는 한 한국인이 우장춘과의 만남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하였다. 니혼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후 일본에서 영자신문사 기자로 있던 김종(◎?)이었다. 그는 우장춘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널리 소개됨에 따라 그의 존재를 알았고, 특히 우범선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흥미를 가졌다.¹³ 그는 농사시험장을 방문하여 우장춘을 만났고 1937년 말에는 한국의 신문에 그의 학위논문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우장춘도 김종의 주선으로 이듬해 초에 육종개량에 관한 상당 분량의 글을 한국의 신문에 기고하였다.

) □ ㄴ°???□ (1936. 5. 5)

) 우장춘과 김종의 관계에 대해서는 ?- ???ㅅ? ?????, □?? ??◆ 7 ? ? ㉢(ㄱ) ?- ???ㅅ?□ (서울ㅁ? 0 ???, 1980), 9-14쪽에 잘 나타나 있다.

한국인으로서는 우장춘을 거의 최초로 알게 된 김종은 기쁜 마음으로 그를 상세히 소개했으며, 우장춘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쓴 글의 끝부분에서 자신이 가진 감정의 단면을 드러냈다. 다음은 김종과 우장춘이 당시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박사는 정직정명(正直正名)의 학자적 성격의 소유자로 일본 내지(内地)에 잇는 조선인 학자 및 기술가의 최고봉이다. OO과 통속(通俗)에서 거리를 멀리하고 잇느니만침 이해가 감부(甘否)한 조선의 과학사회에 아직도 잘 알려지지 못하였음이 유감인바 이제 필자가 간단하나마 박사의 학설을 가급적 평이하게 설명하여 그 개요나마 독자제위께 소개하게 되었음을 기뻐(한다).¹⁴

조선의 육종계는 아직 처녀지대(處女地) 그대로 남아있다. 조선의 고유한 품종을 개량하고 북도두어 길이는 것이 육종가와 농촌제위의 협심진력할 목하의 급선무이거니 금후 더욱 다방면으로 만든 노력과 지도와 분발을 부단해 주시기 간원(乞願)하야 마지 안는 바이다.¹⁵

한편, 우장춘이 한국의 혈족을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도 이 시기부터였다. 그는 몇 차례 한국에 있는 이복누나의 집을 찾았고 아버지 본부인의 묘소에 참배를 가기도 하였다. 우장춘과 가장 가까이 지내던 한국인 김종이 그와 한국을 연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우장춘은 한국에 있는 질녀에게 김종을 소개하여 결혼하게 했으며 일본에 유학중인 이모의 한국인 아들을 한동안 자신의 집에

) 김종의 일본식 이름은 ◎?~이었는데 ◎??이라는 필명으로 『동아일보』 (1937. 12. 28)에 "???의 ?¶?□??? ?의 ??(i)?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 ???, "?? i ? ??하는 ??■m의 ???□??은 아직도 ?(ㄷ)?ほ, ?·?", 『동아일보』 (1938. 1. 13; 1. 14).

데리고 있기도 하였다.¹⁶

뿐만 아니라 우장춘은 일본에서 한국인들과의 만남을 보다 넓혀 나갔다. 1937년 교토에 있는 다카이(??) 종묘회사의 초대 연구농장장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김종을 편집기자로 채용하여 원예육종잡지의 일을 맡겼다. 이 연구농장에는 이후 한국인 청년 5-6명이 견습생으로 근무했는데, 이것도 우장춘의 배려나 호의에 힘입은 결과였을 것이다.¹⁷ 이로써 우장춘은 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서로 가까워질수록 한국인들끼리의 모임도 갖게 되었다. 또한 교토제국대학에는 한국의 과학자를 대표하던 교토 3인방으로 이태규, 이승기, 박철재, 그리고 농학자 민관식 등이 있었는데 우장춘은 이들을 찾아가서 교류를 가졌다.¹⁸

육종학자로서 우장춘은 당시 한국의 육종실태에 관심을 가지며 학문적 만남도 갖게 되었다. 한국에 돌아가 보성전문학교 농장 기사로 근무하던 김종은 한국과 만주를 시찰한 후 이들 지역의 채소 및 과수재배에 관한 책들을 썼고 그에 대해 우장춘은 감수를 해주었다. 이 책들이 일본에서 출간된 것도 우장춘의 주선과 도움에 힘입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연구농장에서 우장춘 주도로 발간하던 □육종과 원예□에는 한국 배추와 무의 품종 및 채종에 관한 글이 시리즈로 실린 적이 있었다.¹⁹ 전황이 불리해진

) 우장춘은 한국에 있는 이복누나 우회명, 매형 강원달, 이모부 구연수, 이종사촌 구용서 등을 만났다. 쓰노다 후사코, □조국은 나를 인정했다□, 279-300쪽.

) 같은 책, 171-4쪽.

) 김용덕, □어느 과학자의 이야기: 이태규 박사의 생애와 학문□ (도서출판 동아, 1990), 123-4쪽; ◎?, "내가 본 ??? ??", 원우회, □우장춘과 원우회□, 55-6쪽. 예를 들어, 우장춘은 이태규를 먼저 만나러 갔고 한국전쟁 무렵에는 그의 가족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 ◎?, □????의·????□ (Hゴ: ?????, 1939); □????의????□ (Hゴ: ?????, 1942); ㄹ? I?,

일제가 한국에서 채소 육종사업을 새롭게 계획하며 인력 충원을 요청했을 때 우장춘은 김종을 추천하였다. 이로써 우장춘은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배추와 무를 비롯한 채소 전반의 열악한 실정을 비교적 상세히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우장춘과 한국의 만남은 1930년대 후반이 되면 혈연적, 인간적, 학문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 우장춘과 한국은 혈연관계와 같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맺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과의 교류, 한국 채소육종의 이해를 포함한 민족적 차원으로까지 진전되고 있었던 것이다. 우장춘은 점차 일본인으로서의 귀속에서 벗어나 한국인으로서의 자각을 하게 되었지만 그렇더라도 아직까지는 완전한 한국인도 아니고 완전한 일본인도 아니었다. 그는 한국인과 일본인 두 핏줄을 가진, 한국과 일본 두개의 국적을 가진, 우와 스나가 두개의 성을 가진 경계인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우장춘은 그를 찾아온 한국인 학생에게 "나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라[일본□ 펠자 주]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전 인류의 복지를 위하는 심정으로 이 일을 한다"고 하였다.²⁰ 그는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과학연구의 가치를 찾고자 했던 것이다.

"??の??ま??の???", □??と??□ (1943-44).

) 이 말은 1940년대 초반에 교토제국대학 농학부를 다니던 김동우가 우장춘을 찾아갔을 때 들려준 이야기였다. 한국원에발달사 편찬위원회, □ 송암 표현구 교수 회갑기념 한국원에발달사□, 11쪽.

3. 과학 휴머니즘과 '한국적' 과학연구

한국은 1945년 해방을 맞았고 일본에 있던 많은 한국인들은 지체없이 고국을 찾아 돌아왔다. 한국의 독립으로 우장춘의 의식과 행동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던 한국이 새로운 국가로 실체를 갖추으로써 어머니의 나라 일본과 아버지의 나라 한국이 아주 확연하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장춘은 일본과 한국 두 나라와 자신의 관계를 새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만큼 한국의 독립은 한국과 일본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던 우장춘에게 국가적, 민족적 선택 혹은 귀속을 고민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우장춘은 한국이 해방된 다음달인 9월 초순에 다키이종묘회사 연구농장장을 그만두었다. 그는 그간 심심치 않게 도움을 받던 근처의 장법사(???)로 거처를 옮겼고 다음해까지는 일본의 지인들과 함께 개인 연구농장을 세워 운영하려고도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후 우장춘은 한국으로 건너올 때까지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채 무위도식의 생활을 하며 지냈다. 그의 나이도 어느덧 50대에 접어들고 있을 때였다.²¹

그런데 당시 일본 최고의 육종전문가로 명성이 높았던 그가 상당 기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우장춘은 그간의 심경을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다음과 같이 밝힌 적이 있었다.

) 김동우, "내가 본 우장춘 박사", 원우회, □우장춘과 원우회□, 55-6쪽; 쓰노다 후사코, □조국은 나를 인정했다□, 178-9쪽.

해방과 동시에 근 30년 동안 연구하여 일해오던 일본의 직장을 사임하고 교토 교외 사원의 한구석에 칩거한지 어언 4년 유반재(???). 그 동안 나는 언제나 고국[한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얼마나 한숨과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일편단심은 언제나 한국에 농업을 연구하는 기관이 생겨서 내가 목숨을 바쳐 일할 날이 올 것인가 함이었습니다.²²

우장춘의 설명을 보면 해방과 동시에 그는 한국으로 건너올 생각을 하였고 연구여건이 갖추어지기만을 기다렸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우장춘의 귀국 의사가 한국으로 전해진 시점은 그와 맞물려서 '우장춘 박사 환국추진위원회'가 결성된 1948년 무렵이었다.²³ 결국 우장춘이 한국으로의 귀환을 최종 결심한 시기는 해방 직후가 아니라 적어도 2년 이상 지난 뒤였다. 이때부터 우장춘은 일본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한국으로 돌아올 날만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에서 인용한 우장춘의 글은 환국을 결심한 이후에 자신의 생활과 심경을 적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사실 우장춘은 한국행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다. 일본에는 그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여럿 있었고 이들은 철저히 일본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어머니와 부인이 그의 한국 귀환을 완강히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은 정치적 혼란으로 그가 하고 싶은 일을

) 이는 □동아일보□(1959. 8. 11)에 소개된 내용으로 우장춘이 당시 대한원예협회장 김태홍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뒤늦게 일문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므로 우장춘이 전하고자 한 전체 뜻은 잘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사용된 단어가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된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 쓰노다 후사코, □조국은 나를 인정했다□, 184쪽에는 우장춘 환국추진운동이 1947년 중반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설치는 다소 시간이 걸려 그 다음해에나 이루어졌을 것이다.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우장춘은 귀국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조언을 구했고, 이 때문에 한국에서 그를 설득하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²⁴ 그동안 우장춘의 귀국은 투철한 조국애 때문이라는 설명이 널리 받아들여져 왔지만 그의 출신배경, 성장과 활동, 귀국시기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그의 조국애는 한국행을 결정한 이후, 특히 한국에 돌아와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커지게 되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가 한국으로의 귀국을 결정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우장춘 환국추진운동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운동은 경상남도 농림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김종의 주도로 일어났다. 그는 우장춘의 존재를 각계에 널리 알렸고 급기야는 우장춘을 한국으로 데려오자는 의견을 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김종은 이 사실을 일본에 있던 우장춘에게 알렸고 그와 친분이 있던 윤태현이 일본에서 설득작업을 벌였다고 한다. 우장춘은 생각 끝에 한국에서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함으로써 우장춘 환국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그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게 되었다.²⁵ 환국추진위원회는 경남 지사를 역임한 추진위원장 김병규를 비롯하여 동래원예고등학교 교장 김홍수, 귀속농지관리국장 김복수, 농림국장 김종, 지식인 모임인 기영회(④??)의 이희보, 광중섭, 윤세병 등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 위원회는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농지를 불하 받아 부지를 마련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모금한 금액 1백만원을 일본에 있는 우장춘에게 보낼 수 있었고, 1949년 4월에는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한국농업과학연구소가 창설되기에

) 같은 책, 188-190쪽; 한국원에발달사 편찬위원회, □송암 표현구 교수 회갑기념 한국원에발달사□, 11-12쪽.

) 같은 책, 11-12쪽; 쓰노다 후사코, □조국은 나를 인정했다□, 184-192쪽.

이르렀다.²⁶

우장춘은 가족을 모두 일본에 남겨둔 채 혼자의 몸으로 1950년 3월에 한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일본에서 올 때 한국의 한국추진위원회가 가족 생활비로 보내준 돈을 모두 과학도서 및 잡지, 실험기구, 각종 종자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귀국환영회 자리에서 김병규 위원장은 '우장춘 박사는 대마도와의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며 그의 귀국을 반겼다. 이에 대해 우장춘은 '그동안 어머니의 나라 일본을 위해서 일본인 못지않게 노력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나라 한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 나라에 뼈를 묻겠다'고 약속하였다.²⁷ 그는 가슴 속에 존재하고 있던 반쪽의 일본인은 떼어버리고 온전한 한국인으로 살기로 했던 것이다.

우장춘은 인간애와 동시에 과학주의를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성품으로 따스한 인간애를, 지식으로는 과학적 진리와 믿음을 추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²⁸ 이 둘은 인간애를 가지고 과학활동을 추구하며, 과학활동을 통해 인간애를 실천하고 나아가서는 인간성을 실현하는 형태로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우장춘은 과학을 통해 인도주의, 나아가서는 인간주의를 이루고자 몸으로 직접 보여준 사람이었다. 여기서 나는 과학과

) (p)??? ??? ㅏ?, □??? ㅏ? ??(ㄷ)□ (2003), 24-26쪽.

) 한국환영회에서 행한 축하와 답사의 요지는 ? ? , "??? : ???의 ???", □?ㄴ 의 ?□?□ 3 (?ㄹ ???, 1967), 466쪽; 김태욱, □마음속에 살아있는 인간 우장춘□, 13, 26쪽에 간단히 소개되어 있다.

) 우장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간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은 김태욱, □마음속에 살아있는 인간 우장춘□의 곳곳에, 그의 과학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은 우장춘, "유전과학 응용하는 육종개량의 중요성-상", □동아일보□ (1938. 1. 13)에 나타나 있다.

인간애의 결합된 모습을 '과학 휴머니즘'이라 부르고자 한다.²⁹ 이 과학 휴머니즘은 우장춘의 가장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으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에게는 국적, 혈연, 생활, 과학 등도 과학 휴머니즘과의 관련 속에서 발현되었다.

그는 한국의 농업을 개선 발전시켜 한국인들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즉 과학 휴머니즘에 기인한 헌신적인 과학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선택하였던 것이다. 그 대상은 당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던 한국과 한국인들이었다. 하루하루의 생활을 간신히 이어가는 아버지 나라 한국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과학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해결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과학을 이용한 자기 자신의 헌신과 희생, 이를 통한 한국인들의 생활 개선이 우장춘이 한국에서 살고자 한 삶이었다. 이같이 우장춘은 한국으로의 귀국을 새로운 조국의 선택으로서보다는 새로운 소명의 수행을 위해 단행했던 것이다.

우장춘은 연구소 소장에 취임하자 농촌 현실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농촌을 두루 돌아보았다. 당시 한국의 농촌은 일제 지배로부터 벗어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대다수 농가는 기존의 종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일부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 종자에 의존하고 있었다. 특히 채소 종자는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어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 무질서하게 들여오고 있었는데, 그 물량은 상당한 양에 달하였다. 이같이 우장춘은 한국의 농촌 현실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이후의 연구내용과

) 휴머니즘은 인문주의, 인본주의, 인간주의, 인류주의, 인도주의 등처럼 다의적 개념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인도주의와 부분적으로 인간주의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과학 휴머니즘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신학자이자 의사인 슈바이처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 □휴머니즘□(????, 1976)을 참조할 것.

방향을 잡아나가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 그는 자신의 목표와 역할을 아주 뚜렷이 하였다. 그는 '본연의 임무인 육종사업과 후진양성에만 매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³⁰ 즉 그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한국에 기여하는 역할은 충실히 하겠지만 더 이상의 책임과 의무는 과분한 것으로 여겼다. 당시 한국에서는 연구소 명칭을 농업과학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인 것처럼 붙이고, 후에는 우장춘에게 농림부 장관직을 제시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엄청나게 컸었다. 하지만 그는 오로지 자신이 세운 제한적인 과제, 실제로 그가 잘 할 수 있을뿐더러 그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일들만을 하고자 하였다.

그는 한국에서 오로지 과학 외길의 인생을 걸었다. 그는 다른 권위나 잡무에 눈길을 두지 않고 철저히 그리고 한결같이 과학교도 혹은 과학수도자로서 생활하였다.³¹ 연구소는 그에게 생활공간이고 삶의 터전의 전부였다. 매일같이 아침 일찍 실습장으로 나와 채소와 꽃들에 파묻혀 생활하다가 늦게 귀가하였다. 그는 농림부 평가에서 사무능률, 근무태도, 직원의 신뢰, 책임의식 등 모든 면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³² 이는 물론 일본에서부터 몸에 배어온 생활의 철학이고 습관이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보다도 철저하였다. 당시 한국은 과학자일지라도 높은 직위와 권한에 많은 관심을 쏟을 때였으나 그는 대우와

) 김태욱, □마음속에 살아있는 인간 우장춘□, 258쪽; 한국원에발달사 편찬위원회, □송암 표현구 교수 회갑기념 한국원에발달사□, 13쪽.

) 실제로도 우장춘은 연구소 사람들에게 "연구란 입산수도(???ㄱ)하는 거야"라는 말을 하였다.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원예연구소 50년□, 500쪽.

) 농림부, "근무성적표"(1958, 국가기록원 소장). 이로 인해 우장춘은 1957년 4월에 농림부장관 표창, 12월에는 제1회 부산시 문화상을 받았다.

보수에도 연연하지 않았다.³³

우장춘이 한국에서 추구한 과학활동의 방향은 '한국적 과학연구'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것은 활동공간이 한국으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연구의 목표, 내용, 방식, 대상 등까지도 한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모습은 우장춘이 자신이 하고 싶은 개인적 과학연구가 아닌 의도적으로 한국이 필요로 하는 국가적 과학연구에 집중한 결과였다. 그는 과학연구를 개인의 명예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기보다 과학 휴머니즘에 따른 국가와 국민에의 봉사로 간주했던 것이다.

먼저 우장춘의 과학연구는 이전 일본에서와는 달리 세계나 일본의 요구가 아니라 철저히 한국의 필요에 맞추어졌다. 일본에서 우장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전육종학의 학문적 발전과 첨단적인 육종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의 연구목표는 항상 최신의 학술연구와 앞서가는 첨단연구에 중점이 두어져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는 국내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채소 종자의 자급과 보급에 무엇보다 치중하였다. 당시 한국의 상황에서는 종자 생산보급체계를 시급히 확립하여 농촌의 극심한 혼란과 피해를 모면할 필요가 컸던 것이다. 이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채소 '종자의 독립'은 우장춘이 한국에서 추구한 가장 핵심적인 연구목표였다.³⁴

다음으로 우장춘은 육종학의 특정 전문분야를 깊이 탐구하기보다 육종학과 육종기술의 토대를 폭넓게 세우는 데 힘썼다. 그는 일본에서 최고 육종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최신의

) 물론 우장춘의 실제 직급은 다른 시험연구기관의 책임자들보다 높아 1953년에 1급 2호봉, 1955년에는 1급 1호봉을 받았음은 우장춘, "이력서"를 참조할 것.

) KBS에서 방영한 □인물현대사: 씨앗의 독립□우장춘□ (2004)에서 처음으로 우장춘의 연구활동의 가치를 '씨앗의 독립'으로 표현하였다.

염색체설과 고배율의 현미경을 가지고 고전유전학의 기념비적인 논문을 써서 '종의 합성'이론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불분명했던 배추와 무를 포함한 십자화과(??? i) 채소의 일대잡종 육종기술체계를 과학적으로 확립한 바 있었다.³⁵ 그러나 한국에는 원예분야의 전문인력이 전혀 없는 형편이어서 우장춘은 이들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기초부터 보급하는 데 힘썼다. 원예학을 비롯하여 생물학, 유전학, 육종학, 작물재배법, 통계학 등은 그가 제공하고자 한 내용들이었다.³⁶

또한 우장춘은 한국의 채소종자 개량생산에 직접 관련된 실용적이고 응용적인 연구에 치중하였다. 학술연구는 한국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는 직원들에게 '시험을 위한 시험이나 논문준비를 하기 위한 시험'은 한동안 뒤로 미룰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다.³⁷ 그 스스로도 한국에서 재직하는 동안 학술논문을 한 편도 쓰지 않았다. 일본에서 여러 유명 잡지에 20편의 우수한 연구논문을 때로는 영문으로도 발표한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렇다고 우장춘을 포함한 연구소 직원들이 낸 연구성과가 학술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당시 연구소에서 발간한 사업보고서를 보면 방대한 실험결과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³⁸

) 우장춘의 일본에서의 연구논문과 업적은 ?????? ∨ ⊗(s(i)???????, □ ?????? ∨ ⊗(s(i)?? □ (H????, 1958)에 나와 있고, 주요 연구성과에 대한 해설은 ???, "??? ??의 ?? ? 卜??과 오늘의 ??? 및 ??◆?", □ '92(㉔)◆ 4?의 ??? "???" ⊗(s(i)?? □ (1992), 1-5쪽에 들어 있다.

) 현재도 원예연구소 도서관에는 우장춘이 특히 일본으로부터 구입한 원예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도서와 잡지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다.

) ?????? ∨ ⊗(s(i)???A???, □ ?????? 卜 ??(㉔) □ (???, 1985), 8쪽.

) 연구소의 사업보고서는 현재 1956-59년까지가 보존되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내용이

끝으로 우장춘이 한국에서 가장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은 품목은 배추, 무, 고추 등이었다. 이들 작물은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재료로서 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었다. 일본에서 그가 주로 연구한 대상이 유채, 나팔꽃, 페튜니아, 각종 채소 등이었던 것과는 크게 대비되었다. 우장춘은 이들 작물 연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인력을 투입하여 가장 많은 실험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이들 연구에 1958년 구성된 연구팀의 절반이 참여했을 만큼 배추, 무, 고추 등은 우장춘이 한국에서 가장 역점을 두며 추진하려고 한 연구대상들이었다.

우장춘은 한국에서 소박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외모와 옷차림에는 무관심하여 항상 잠바와 고무신으로 생활을 하였다. 연구소의 책임자라기보다는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농부와 같은 모습이었다. 가끔씩 일본의 가족 생활비로 지원되는 돈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에서 종자와 기자재, 도서 등을 구입하는 데 그 전부를 사용하였다. 당시 연구소에서 발간한 사업보고서와 연구보고 어디에서도 우장춘의 흔적은 발견할 수가 없다. 오로지 모든 과학연구의 성과는 그와 함께 활동한 다른 연구자들의 몫으로 돌려졌다.³⁹ 이처럼 우장춘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척박한 땅에서 하나의 씨앗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세운 과학연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두 가지 나름의 전략을 펼쳤다. 하나는 육종학의 사회적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인식시키고자 '씨 없는 수박'을 강연 주제로 자주 활용했다는 점이다. 육종연구의 대표적 사례로 마술처럼 신기한 수박 이야기를

방대하여 1959년 보고서는 1천 쪽에 달한다.

) 사업보고서와 연구보고에는 연구자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데 우장춘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다.

함으로써 대중적 주목을 손쉽게 끌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우장춘을 곧 씨 없는 수박의 개발자로 오인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⁴⁰ 다른 하나는 그를 도와서 육종연구를 수행할 연구원들에게 조국애를 강조하며 헌신적인 노력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단결된 힘과 의지가 중요하였다. 우장춘은 함께 생활하는 연구원들에게 제일 먼저 자신을 본받아서 과학연구에 열성과 헌신을 다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다.

한편, 우장춘은 한국에서의 생활에서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 가장 크게는 언어 때문에 생겨났다. 그는 우리말을 할 줄 몰랐고 대화나 강의는 언제나 일본어로 하였다.⁴¹ 그는 살 날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전념하려 했고 우리말을 잘 모르더라도 그것들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같은 사정 때문에 우장춘은 종종 비애국자 혹은 친일파로 의심을 받았고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강연 거부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연구소에서는 연구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다소 있었고 각 구성원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제약이 따르게 되었다. 대통령 이승만까지 그에게 우리말을 배울 것을 권유했으나, 그는 적극적으로 배우려 하지 않았고 끝내 하지 못하였다.⁴²

) 김태욱, □마음속에 살아있는 인간 우장춘□, 53-66쪽. 씨 없는 수박은 우장춘과도 친분이 있던 일본 교토제대 기하라 히토시가 1943년경에 처음 개발한 것이다.

) 우장춘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글을 보거나 이해하는 정도로 그 수준이 향상되기는 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언제나 일본어로 말을 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항상 번역과 해석의 문제가 뒤따랐다. 예를 들어 3인칭으로 한국이라 말할 경우 번역자나 청중은 그것을 1인칭인 나의 혹은 우리의 나라로 이해할 가능성이 컸던 것이다.

) 김태욱, □마음속에 살아있는 인간 우장춘□, 271-280쪽.

또한 우장춘은 일본에서의 오랜 생활경험 때문에 한국사회의 현실과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점에서도 곤란을 겪었다. 특히 연구소에 정식 직원이 아닌 연구생 신분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대학 졸업자라도 경제적, 신분적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의 열악한 사회 현실 속에서 많은 문제를 개인의 인내와 헌신으로 버티어 나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리고 우장춘은 한국 음식을 잘 먹지 못했고 특히 김치는 너무 매워서 그의 입맛에는 잘 맞지 않았다. 비록 김치의 재료인 배추의 육종에 높은 열정을 쏟았지만 김치까지 좋아하기는 힘들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외식을 할 때는 그동안 익숙하게 먹어오던 일식을 즐겨 찾을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나자 우장춘이 있는 연구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방문을 했지만 갈수록 우장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져 나중에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경유지가 되었다. 일부에서는 연구활동을 위해 방문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우장춘은 연구소를 널리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계속 개방했을 뿐 아니라 안내 설명까지도 친절히 해주도록 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우장춘을 고무신 할아버지, 고무신 박사로 부르며 친근감을 표시했고 그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⁴³ 비록 그의 말투와 행동, 습관은 한국 사람들과 여전히 달랐지만 그를 한국인으로 생각하는 데 그것들이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남다른 과학적 공헌과 헌신적 생활만으로도 그를 진정한 한국인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우장춘은 1959년 8월 자신의 뜻대로 한국에서 죽음을 맞았고 장례는 수많은 사람들이

) 같은 책, 75-86, 230-3쪽.

애도하는 가운데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한국농학회 회장 조백현은 추도사에서 과학 휴머니즘을 실천으로 보여준 우장춘에 대해 "우 박사의 귀국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특사를 파견한 것"으로 "그대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일을 한 것"이라고 치하하였다. 시인 이은상은 "불우와 고난 속에 진리를 토파내어 종자합성[종의 합성] 새 학설을 세계에 외칠 적에 ... 그 정신 뿌리되어 싹트고 가지 뻗어 이 나라 과학의 동산에 백화만발하리라"는 추도시를 바쳤다.⁴⁴ 한국정부는 병석에 있던 우장춘에게 "교육, 학술, 예술, 기타의 문화발달 또는 민중의 계몽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로 여겨 건국 이후 두 번째로 문화포장을 수여하였다.⁴⁵

4. 장춘학과와 육종연구의 발전

우장춘이 한국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는 데는 연구공간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그가 주도하는 연구소가 만들어짐으로써 연구인력을 그의 주변으로 모을 수 있었고 자신이 세운 연구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없더라도 그동안 쌓은 연구활동을 이어나갈 기반과 인맥을 제도화시켜 하나의 연구전통을 오랫동안

) 조백현의 추도사는 □한국일보□ (1959. 8. 11)에 게재되어 있고 이은상의 추모시는 묘비에 새겨져 있다.

) 우장춘은 안익태에 이어 두 번째로 문화포장을 받았으며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무원 사무국, "문화포장에 대하여"(1958, 국가기록원 소장)를 참조할 것.

지속시킬 수 있게 되었다.

당시의 일반적 연구기관과 달리 이 연구소는 철저히 우장춘 개인 연구소의 성격을 지녔다. 첫발을 내디딘 농업과학연구소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만 국가 기구에 속하지 않는 재단법인의 형태로 세워졌다. 몇 년 후에 이 연구소는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으려 국가의 정식 연구기관으로 바뀌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우장춘의 주도권과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일찍이 그와 함께 활동했던 한 인사의 증언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연구소는] 우 박사의 일터로 세워진 기관이며 우 박사가 귀국하여 돌아가실 때까지는 여타의 농업연구기관과는 달리 전적으로 우 박사의 학문과 기술과 그 지도에 따라 움직여진 시기이므로 우 박사 서거 후에야 비로소 우 박사가 남긴 업적을 토대로 하여 다른 농업연구기관과 같이 일반적 연구기관과 동일한 체제 아래 시험연구사업이 진행되어 갔다.⁴⁶

국내에는 이미 중앙농업기술원이 있었고 그 내에는 원예과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우장춘 연구소'를 새로이 만들어 전폭적인 후원을 해주었다. 한국정부가 이 연구소를 지원한 이유는 우장춘이 뛰어난 과학자라는 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애국적 행위를 국민적 교훈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로서 반일의식 및 행동이 가장 큰 애국인 것으로 여겨지던 상황이었다. 특히 대통령 이승만은 누구보다도 우장춘과 그의 연구소를 위한 든든한 후원자와 옹호자였다. 그는 국가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에

) ©??, "????의 ??? ??과 그 ??", □(p)? h ?□ 8(1) (1985. 3).

상당한 재정을 지원해 주었고 우장춘을 수시로 만나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⁴⁷

연구소는 시기에 따라 명칭이 바뀌었다. 1949년에 한국농업과학연구소로 불리다가 1953년에 중앙원예기술원, 1958년에 농사원 원예시험장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소는 담당업무의 확대와 함께 직제도 약간씩 달라졌다. 대상범위가 채소와 화훼에서 과수까지 포괄하게 되었고 다른 기관에 존재하던 원예 관련 연구도 옮겨왔다. 뿐만 아니라 채소 청정재배, 대관령 씨감자 생산, 제주도의 굴 대량재배 등도 연구범위에 포함되었다. 1958년 당시 연구소 직제는 서무과, 제1과(채소육종 및 경종), 제2과(과수), 제3과(채소원종 및 병리), 제4과(화훼), 김해지장(과수육묘), 서울지장(채소와 화훼)으로 편성되어 있었다.⁴⁸ 예산은 1949년에 176,396환으로 시작하여 51년 8,502,312환, 53년 23,107,834환, 55년 155,367,150환(18개월분), 57년 139,942,400환으로 크게 증가하였다.⁴⁹

연구공간이 마련된 후 다음으로 필요한 일은 연구인력을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었다. 원예 육종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였고 그 중에는 잘 훈련받은 다수의 연구인력도 요구되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원예전문가가 매우 드물었으며 연구소의 직원 정원도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고등 전문인력은 한결같이

) 우장춘과 이승만의 관계는 김태욱, □마음속에 살아있는 인간 우장춘□의 여러 곳에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다. 물론 국가에서 지원되는 재정 규모에 대해 우장춘이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음은 지계선, "우장춘: 육종학의 마술사", 466쪽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 실제로는 김해지장이 제1과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원예연구소 50년□, 24-54쪽.

) ???◆??, □???◆?? ??■□ (1958), 12쪽. 예산과 관련해서는 1953년에 화폐개혁이 일어나 100원이 1환으로 바뀌었고 1957년에는 예산 시작시기가 변경되었다.

대학이나 관청으로 나아가려고 할 뿐 보수가 적고 권한도 없던 연구소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다. 연구소의 직원 정원은 1950년 12명에서 출발하여 1958년 21명으로 늘어났으나 크게 미흡했고 이들 중 실제 전임 연구직 인원은 15명 이내에 불과하였다.⁵⁰ 당시 연구직 종사자들의 직위는 정규직으로 기사-기좌-기정-기감, 비정규직으로 연구생-조수-촉탁으로 되어 있었다.

우장춘은 연구인력을 대거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정에는 없는 연구생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195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대학과 실업학교 졸업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연구활동을 보조하도록 하면서 연구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었다. 연구생들이 꾸준히 입소한 것은 우장춘의 명성에 힘입은 바가 컸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그 인원은 우장춘 재직 기간 동안 적어도 50여 명에 달하였다.⁵¹ 매년 정규직 직원과 비슷한 규모의 연구생이 있었고 이들 중 대학 졸업자는 전체의 1/3-1/4 비율이었다. 이들은 형편없이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직위로 인해 이동이 잦았으나 그 중에는 핵심 연구인력으로 성장한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우장춘은 연구생들이 어려운 여건을 잘 버틸 수 있도록 이 제도가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일부임을 강조하였고 미흡하나마 합숙시설, 영어교육, 징집면제 등을 지원 및 주선했다.⁵²

) 연구소 직원 정원은 최정일박사회갑기념논문집발간위원회, □채소화해연구 30년□, 17쪽, 연구직 실제 인원은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원예연구소 50년□, 36, 46쪽에서 얻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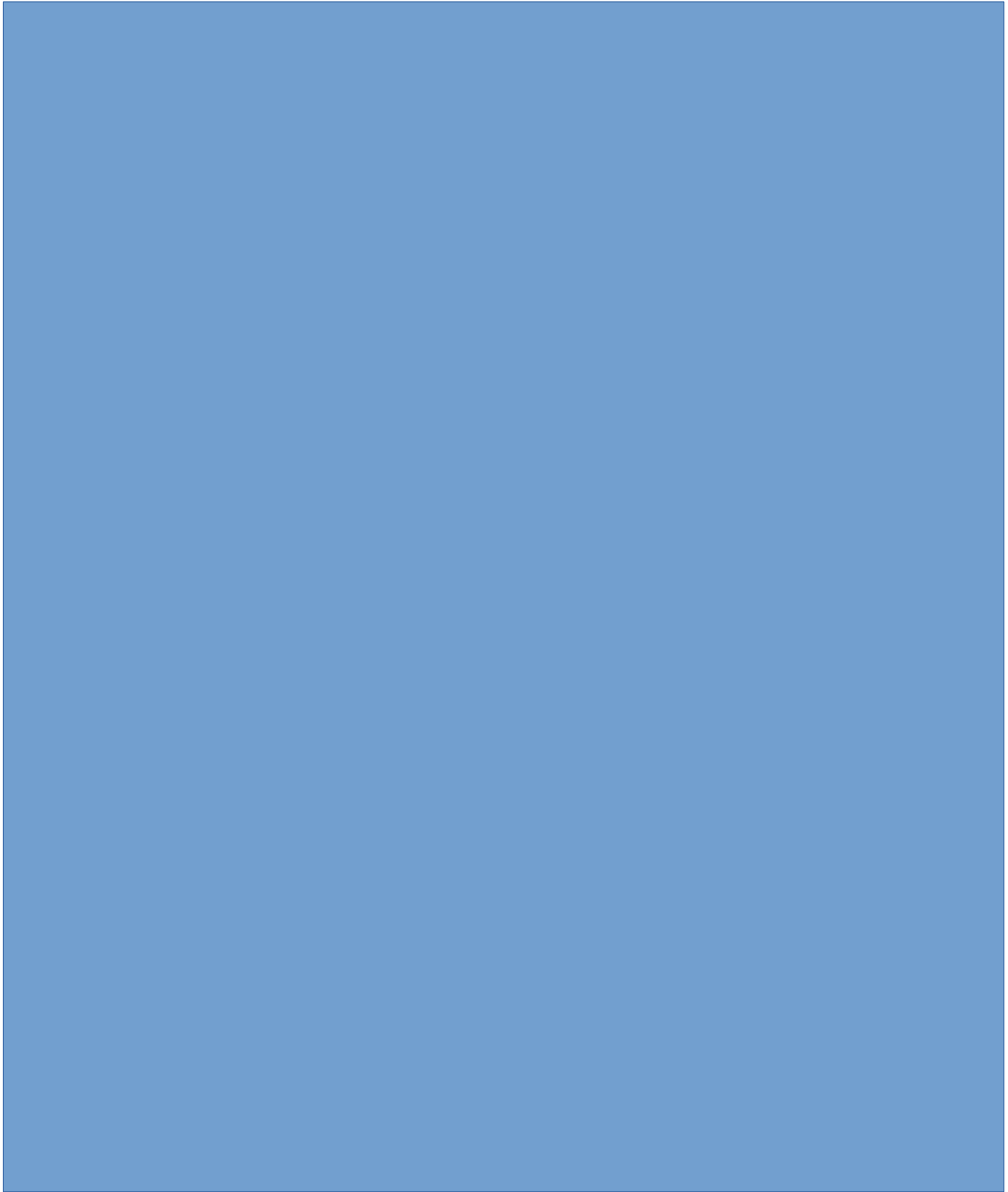
) 같은 책, 31쪽. 실제 인원은 이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 1954년 당시 쌀 1가마니 값이 3만2천환 정도였던 점에 비해 급료는 연구생 월 2,400환, 조수 월 3,000환, 일용인부 일 120환, 촉탁 월 37,542환(58년)이었다. 홍영표, "연구원 생활의 시련과 추억",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원예연구소 50년□, 502-3쪽.

우장춘이 이끈 연구소에 모인 사람들은 그로부터 육종연구에 관한 훈련을 직접 지도받았을 뿐아니라 그의 연구활동을 그대로 본받게 되었다. 당시는 육종학에 관한 책들을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소장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모든 지식과 기술은 우장춘의 가르침으로부터 얻어졌다.⁵³

<표 1> 장춘학파의 주요 인물

) 홍영표와의 인터뷰(2004. 11. 1)에 따르면 우장춘은 교실이 아닌 실습장에서 '현장지도'의 방식으로 연구자들에게 육종연구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한다.



철" (1956-1961, 국가기록원 소장); 원예시험장, □시험연구사업보고서□ (1959; 1960) 등을 재정리한 것임.

우장춘의 직장 내 위치와 학문적 권위는 물론 인간적 매력, 헌신적 태도 등도 연구소 직원들이 그를 철저히 뒤따르게 한 요인들이었다. 더구나 이들은 대부분이 연구소 안에 위치한 관사나 합숙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때문에 우장춘에 대한 이들의 의존은 매우 클 수밖에 없었고 존경심과 충성심까지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다. 이같이 우장춘이 제시했거나 그를 본보기로 삼아서 공통의 연구활동, 생활방식, 가치관 등을 장기간 나누어 가진 연구소 내의 구성원들을 우리는 장춘학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장춘학파에 속한 주요 인물들은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30여 명에 이르렀다.⁵⁴ 이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농업학교를 나온 초기 연구직 직원들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을 졸업한 연구생 출신들이며 나머지는 행정직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분야별로는 우장춘의 전공분야로서 연구소에서 중점을 두었던 채소분야의 연구인력이 가장 많았고 반면에 과수분야는 적은 편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교육수준이 낮으며 연구경력 또한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예외적인 두 사람은 일본에서 우장춘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거나 학교 선후배 사이인 경우였다. 이렇듯 원예연구 분야의 초보자들이 우장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어 하나의 연구그룹을 형성했던 것이다. 연구소 내에서 우장춘은 마치 스승 혹은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고 직원들은 제자 혹은

) 장춘학파의 주요 인물에는 우장춘과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연구활동을 한 사람들을 포함시켰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 그 규모와 구성원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신도처럼 행동하였다. 연구소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함부로 거역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한 직원의 회고에 따르면 "우 박사의 한마디 말씀은 절대적이지요 지상명령이었다"고 한다. 연구생들이 녹향회((e)??)를 만들어 자신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으나 우장춘의 생각을 크게 바꾸지는 못하였다.⁵⁵ 뿐만 아니라 우장춘은 연구소 사람들을 부를 때도 '최군', '김군' 등으로 불렀다. 제법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친근감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서로 간에 위계관계가 매우 뚜렷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장춘학파는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해 존속에 어려움이 생긴 적도 있었다. 가장 큰 위기는 1951년 초 무렵에 부소장으로 있던 김종이 우장춘과의 견해 차이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였다. 이때에 5, 6명의 직원들이 김종을 따라 연구소를 그만두기는 하였지만 연구활동을 준비하던 초기라서 곧바로 새로운 인력충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⁵⁶ 또 다른 위기로는 1955년 경비의 위법경리와 시험지 생산물의 무상처분 등이 정부 감사에서 발각되어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서울지장 설치시 운영비를 은행에서 빌려 사용했다가 이를 잘못 처리하고, 김해시험지에서 생산된 배추와 무를 직원들에게 나누어준 일 등이 지적을 받았던 것이다. 이 사건은 연구소 책임자 우장춘이 문책을 받고

) 김태욱, □마음속에 살아있는 인간 우장춘□, 292쪽; 홍영표, "연구원 생활의 시련과 추억",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원예연구소 50년□, 502-3쪽.

) 같은 책, 29쪽. 김종이 연구소를 사직한 시기는 후임의 일환으로 박승만이 1951년 1월 5일에 임명된 사실을 가지고 추정할 수 있다[????iv, "◆⊂(???◆??) ?? ??의 ◆ ??" (1954, 국가기록원 소장)].

대금 약 20만환을 직원들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⁵⁷

장춘학파가 지닌 특징의 하나는 연구소와 연구자들의 활동이 우장춘의 직할체제로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연구소에는 원장을 보좌하는 직위로 부소장 혹은 부원장이 있었다. 그러나 우장춘은 모든 연구소 사람들을 직접 만나 과제를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부원장은 고등 학력이나 풍부한 경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음에도 두드러진 활동을 남기지 못한 채 얼마 가지 못해 그만두었다.⁵⁸ 대부분이 우장춘이라는 거물 밑에서 자신의 권위와 역할을 적절히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부원장 제도는 1958년부터 직제에서 아예 없어져 제도상으로도 원장 단일체제가 되었다.

다음으로는 연구자들이 우장춘이 총괄하는 연구과제를 서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모든 연구자들은 팀 단위로 나누어져 우장춘이 주는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팀 연구조직은 2-4명 단위의 기사(기좌)-연구생(촉탁)으로 구성되었으며 1958년에는 총 14개의 연구팀이 운영되었다.⁵⁹ 각 연구팀은 매년 2-3개의 연구주제를 맡고 그것을 이어서 수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연구분야를 특화시킬 수 있었다. 우장춘은 연구자별로 전문화된 연구활동을 한국 육종연구의 발전방안으로 생각했던

) ?리?, "(???) ?리◆?? = ???" (1956-1961, 국가기록원 소장). 홍영표와의 인터뷰(2004. 11. 1)에 따르면 실제로는 배추와 무를 연구소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 부소장(부원장)으로는 김종(1950-51 초), 박승만(1953-55)만이 짧은 기간 임명되었을 뿐 공석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 전임 연구자를 기준으로 하면 14개 연구팀, 연구생을 기준으로 하면 25개가 넘는 연구팀이 있었다. 원예시험장, □시험연구사업보고서□ (1959).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는 우장춘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내부 결속력이 매우 강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은 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들까지 서로 간에 공유하며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우장춘을 중심으로 해서는 연구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연구소 공간을 통해서는 생활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연구와 생활이 일체화된 이들의 모습은 때때로 다른 연구소와 대학의 원예분야 사람들과 마찰과 갈등을 빚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⁶⁰

우장춘이 살아있는 동안 장춘학파가 벌인 연구활동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⁶¹ 제1 시기는 1950-53년까지로 재래품종과 특히 도입품종으로부터 우량 고정품종을 찾아내어 채소 종자의 자급생산에 중점을 두었다. 1951년 정부로부터 상당한 재정 지원을 받아 시험포장을 만들고 유리지붕 망실 48동을 신축하며 기존의 온실 3동을 수리하는 등 육종연구를 위한 시설을 갖추었다. 그 결과 1953년부터는 한국의 기후와 한국인의 식성에 알맞은 우수한 고정품종을 얻어내고 그에 대한 생산력검정시험과 순도검정시험을 하게 되었다. 이 선발된 종자를 전남 진도의 채종지에서 대량 생산하게 됨으로써 1955년 무렵에는 배추, 무, 고추 등의 채소 종자를 양적으로 자급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⁶²

) 우장춘과 연구소 사람들은 중앙농업기술원 원예과 출신자들과 대학의 원예학자들과 그다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우장춘과 같이 활동했던 최정일과 김태일은 시기구분을 대략 두 단계로 하고 있는데 그 구분되는 시점을 각각 1953년과 1958년 무렵으로 잡고 있다. 최정일은 준비단계와 연구단계로, 김태옥은 종자 생산시기와 독창적 연구시기로 그 특징을 파악한다.

) 최정일박사회갑기념논문집발간위원회, □채소화훼연구 30년□, 7-9쪽. 배추와 무, 고추의 고정품종은 1953년에 대거 얻어졌음은 ???, "□??의 ??와 ?◆", □'92년도 4월의 문화인물

이로써 한국에서 채소 육종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제2시기는 1954-57년까지로 확보된 품종으로부터 계통분리나 부분적으로 품종내 교배를 통해 우량계통을 육성하려고 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배추는 19품종 174계통, 무는 14품종 173계통에 대한 분리교잡 시험이 실시되어 적어도 배추는 80계통, 무는 144계통이 생산력검정시험을 거쳐 선발되었다. 이같은 시험은 양배추, 오이, 호박, 수박, 토마토, 가지, 양파, 파 등으로까지도 아주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⁶³ 이 시험결과 얻어진 주요 선발계통은 일반 농가에 보급될 뿐만 아니라 이후의 교잡육종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었다.

제3시기는 1958년 이후로 품종간 교잡시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우량 일대잡종의 육성시대를 열게 되었다. 그동안 얻어진 우량품종에 기반하여 품종간 교잡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채소의 육종에 자가불화합성(??//???)과 웅성불임성(?????)을 이용하기 위해 그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성과에 힘입어 잡종강세를 지니는 신품종을 1960년에 배추 원예1호와 원예2호, 62년에 양파 원예1호와 원예2호, 양배추 동춘(♂?)을 잇달아 개발하였다.⁶⁴ 이 일대잡종은 주요 민간종묘회사에 분양되어 종묘산업의 본격적인 태동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우장춘" 기념논문집 □, 26-30쪽을 통해 알 수 있다.

) ???????, □?????? ??? □ □ (1957); □?????? ??■□ (1958). 선발된 계통의 수는 1953-56년까지 얻어진 결과이다.

) 한국원예발달사 편찬위원회, □송암 표현구 교수 회갑기념 한국원예발달사□, 168-171쪽; ◎♂? 외, "???? ??에 ?한 배추 ???? ??에 ◆하여", □(p)???? ? □ □ (1960); ??? 외, "????을 ??한 양파 ??에 ◆하여", □(p)???? ? □ □ (1960); ◎♂? 외, "????을 ??한 양배추 ???? ??에 ◆하여", □(p)???? ? □ □ (1961).

이처럼 장춘학파의 연구활동은 도입육종, 분리육종, 교잡육종으로 순차적인 발전과정을 거쳤다. 우장춘이 추구한 제1기의 한국적 과학연구로 인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연구자들의 열의를 이끌어내는 속에서 육종연구의 기초가 빠르게 확립되고 특정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제2기부터는 이같은 한국적 과학연구의 성과에 힘입어 우장춘이 일본에서 수행했던 수준높은 유전육종학과 일대잡종기술을 그것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제3기가 되면 장춘학파의 구성원들이 우장춘의 일본에서의 연구활동을 모방하여 그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면서 선진국에 근접한 육종성과를 본격적으로 내기에 이르렀다. 특히 한국에서 중요성이 커 가장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은 배추, 무, 고추 등에서는 오히려 이들이 국제적으로 첨단적인 연구성과를 주도하는 모습을 띠었다.⁶⁵

이후 장춘학파의 구성원들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으로 나아가 한국의 육종연구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무엇보다 이들의 활동 기반이었던 연구소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사람들이 많아 장장으로 김동우, 최정일, 지장장으로 지계선, 이창환, 송기원, 조상규 등이 활동하였다. 민간종묘회사로도 다수의 연구자들이 진출하여 중앙종묘의 현영주(연구농장장), 최정일(사장), 흥농종묘의 정덕교(연구농장장), 김원규(사장), 정인기(부회장) 등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학계로 나아간 사람들로 김동우

) 자가불화합성을 이용한 일대잡종 배추의 개발은 세계 최초의 성과이고 무와 고추는 그 과정이 복잡한 관계로 일대잡종 연구성과는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에 얻어졌다. 조영환, "민간육종의 현재와 미래", □'92년도 4월의 문화인물 "우장춘" 기념논문집 □, 27-31 쪽을 참조할 것.

(안성농전), 이병기(전북대), 권상수(동아대), 이광연(충전대) 등이 있었다.⁶⁶

아울러 이들은 1963년에 원우회를 결성하여 서로의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우장춘의 업적을 널리 알리는 일에도 앞장섰다. 원예학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매년 우장춘 묘소를 방문하여 추도식을 거행하고 우장춘원예상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우장춘박사기 쟁탈 배구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우장춘의 업적을 활발히 보급하기 위해 부산과 수원에 우장춘동상을 세우고 상당수의 책과 글을 써서 발표하였다⁶⁷ 한국의 과학계에서 후학들이 스승의 업적을 꾸준히 기리는 일은 매우 드문 일로서⁶⁸ 우장춘이 대중적으로 유명해지고 한국의 대표적 과학자로 인정받게 된 데에는 이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된다.

5. 맺음말

명성이 뛰어난 인물일수록 그럴듯하게 구성된 신화가 존재한다. 그동안 우장춘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신화가 전해내려 오고 있다. 하나는 신기한 재능을 발휘하여 씨없는 수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애초부터 한국인으로서 자각하고

) 원우회, □우장춘과 원우회□, 71-117쪽. 우장춘에 대해 대중적인 글을 쓴 후학들로는 김태욱, 최정일, 지계선, 홍영표, 진정기 등이 있다.

) 원우회 사람들은 우장춘에 대한 높은 존경심과 강한 단결력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장춘교도(???)로 불렸고 그들 스스로도 이같은 호칭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조국에 헌신한 열렬한 애국자라는 것이다.

이 우장춘 신화는 그가 한국에 돌아올 즈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만 살아온 그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때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위대함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법한 신화가 훌륭하게 만들어졌다. 즉 배일에 쌓여있던 우장춘을 걸출한 한국인 과학자로 정당화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엮어져 신화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신화 속에는 일부의 진실만이 들어있다. 우장춘이 한국으로 건너오게 된 배경에는 조국애가 아닌 과학 휴머니즘이 자리 잡고 있었다. 대부분의 기간을 일본에서 보낸 까닭에 그는 한국을 자신의 나라로 보다는 아버지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한국 귀환은 자신의 과학적 능력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는 소명의식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또한 우장춘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과학연구를 개인의 명예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로 간주하며 한국적 과학연구를 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외국으로부터 한국의 채소종자 독립과 한국의 대표 채소인 배추의 일대잡종기술 발전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우장춘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그가 한국에서 이룬 과학연구는 지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에서 그는 종의 합성 이론을 규명하고 겹꽃 페튜니아를 개발하며 과학적 채소육종체계를 확립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높은 뛰어난 유전육종학자로 활약하였다. 이에 비하면 한국에서 수행한 그의 과학연구는 지극히 한국적이어서 세계 원예육종학의 발전에 대한 기여는 미미하였다. 당시 한국의 낮은 과학수준과 열악한 연구여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었지만 이보다 결정적인 것은 우장춘 자신이 의식적으로 한국에 직접 도움이 될 과학연구를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에서의 채소 육종연구는 우장춘의 후학들에 의해 크게 주도되어 나갔다. 우장춘을 중심으로 형성된 장춘학파는 우장춘이 못다 이룬 과학연구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일본에서 거둔 우장춘의 연구성적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소화 흡수하여 선진국에 근접한 연구성적을 내기에 이르렀다. 특히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배추, 무, 고추 등의 육종연구는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나갈 수 있게 되었다.

우장춘이 뿌린 과학연구의 씨앗은 여전히 한국 채소 육종연구의 소중한 원천이 되고 있다. 지난 2000년에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10여개 국가가 모여 배추과(i) 게놈 국제컨소시엄이 결성되었다. 이때에 배추과 작물의 유형 분류는 우장춘이 종의 합성 연구에서 밝힌 게놈분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배추 품목에서는 한국 배추가 국제 게놈분석의 표준 연구품종으로 선정되고 한국이 이 연구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⁶⁹ 이렇듯 한국의 채소 육종연구는 우장춘이라는 원예육종학의 대부로부터 발원하여 현재도 그 물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 "한국배추 '세계표준 품종' 됐다", □ 한국일보 □ (2000. 9. 24); "놀라운 변신! 배추+양배추 =유채", □ 한국일보 □ (2004. 12. 2). 배추과 작물에는 배추와 무를 비롯하여 양배추, 겨자, 유채, 갓, 케일, 브로컬리 등 3,350여 종이 있다.